

여름, 세 번의 참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삼사순례는 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가

삼사순례는 하루 동안 세 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불교 신행문화다. 겉으로 보면 세 절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 사찰에서 한 번 참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도량을 이어 걷는 까닭은 발원과 성찰, 실천의 마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 곳을 차례로 찾는 형식에는 마음을 한 번 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거듭 살피고 다지는 뜻이 있다. 첫 도량에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도량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집착을 바라보고, 마지막 도량에서는 앞으로의 삶을 서원한다. 따라서 삼사순례의 핵심은 방문한 사찰의 수가 아니라, 참배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침묵과 기다림까지도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부가 된다.

순례의 첫걸음은 '멈춤'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산문에 들어서며 휴대전화와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속도를 늦춘다.

두 번째 참배는 '비움'이다.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원망, 욕심과 후회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세 번째 참배는 '발원'이다. 나와 가족의 평안을 비는 데서 나아가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게 된다.

이처럼 삼사순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기복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몸으로 길을 걷고, 입으로 염불하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종합적인 신행이다. 세 번의 참배는 흐트러진 마음을 거듭 바로잡는 과정이며, 익숙함에 묻혀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여러 도량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수행 전통을 접하면서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여름철 삼사순례는 더욱 특별하다. 무더위는 몸을 지치게 하지만 짙은 녹음과 계곡물 소리, 산사의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땀을 흘리며 산길과 돌계단을 오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작은 수행이 된다. 편안함만을 찾기보다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사찰에 도착해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그늘 아래 잠시 누리는 쉼도 새롭게 다가온다. 불편을 견디고 길을 완주하는 경험은 삶의 어려움 또한 성급히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 산사의 여름은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를 넘어 몸과 마음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된다.

삼사순례는 혼자 떠나도 좋지만 가족이나 도반과 함께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동안 관계의 매듭이 풀리고 감사의 마음이 자라난다.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순례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되새길 수 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이 함께한다면 신앙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중한 교육의 장도 된다.

三寺

특히 안성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산과 들,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하루 삼사순례를 진행하기에 알맞다. 이동 부담이 크지 않고 도량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분위기가 달라 짧은 일정 안에서도 순례의 흐름과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넓은 들과 산길을 지나며 세 사찰을 잇는 과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으로, 번잡함에서 고요함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여정이 된다.

순례를 마친 뒤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이다. 절에서 세운 발원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삼사순례는 비로소 완성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을 살피는 것 모두가 순례의 연장이다. 산사에서 얻은 평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참된 회향이다.

올여름, 마음이 지치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다면 삼사순례의 길에 올라보자. 세 번의 참배는 세 번의 소원 빌기가 아니라, 멈추고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세 번의 마음공부다. 산문을 나설 때 우리는 처음 길을 떠날 때보다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